

유행이 지난 듯 하지만, 고전적 기법을 이용해 삶의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병희는 타인을 인식하며 자신의 세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병희는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했고, 이번이 첫 번째 개인전이다.

윤씨형제전

단성갤러리 9. 16~22



〈삼사 삼사〉 1997

각각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업적을 쌓은 윤문영·윤길영 형제의 전시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즉 정해진 정통성을 거부하고, 기성의 가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윤문영의 관심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다. 그래서 그리는 대상도 대중스타 같은 인물들로서 시대의 느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들이다. 한편 윤길영은 과거에 관심을 두고 옛 것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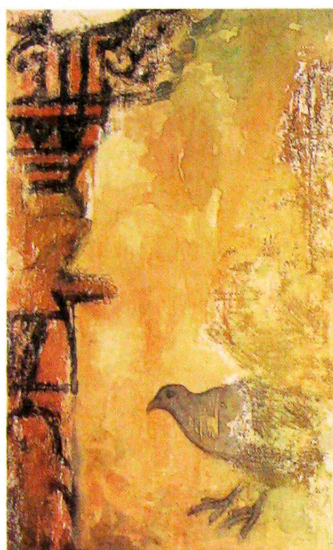
윤문영은 CF감독으로 활약했고, 윤길영은 제약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소영

인덕로갤러리 9. 2~8

박소영은 닭이나 학 등 주로 새를 소재로 한다. 벽화의 퇴색한 질감 같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모래를 종이 혹은 광목 위에 두텁게 입힌 후 그위에 그림을 그린다.

학은 장수의 상징으로, 닭은 보통 악귀를 쫓아내는 의도로써 쓰인다. 전통적 느낌을 주는 박소영의 새들은 기존



〈존재〉 1998

의 상징 체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체 자체로 표현되고 있다. 전통적 기법을 이용하면서 전통적 소재 안에서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박소영은 서울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수료했고, 이번이 첫 번째 개인전이다.

조준영

<http://www.zo.co.kr> 1998. 7~1999. 7

통신 매체의 발달로 모든 일을 안방에 앉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면 학교에 갈 필요도 은행에 갈 필요도 없다. 이제는 그런 실용적인 뉘앙스만 아니라 예술 행위와 관람조차도 집 대문을 벗어나지 않고 방에서 편히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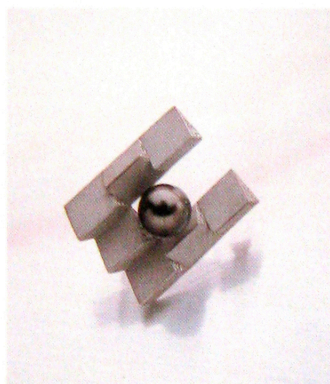
〈System Error〉 1993

조준영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 붓 대신 컴퓨터를 이용한 그의 작품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잘 어울린다. 사이버 갤러리 안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 작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게 한다.

조준영은 홍대 동양화과를 졸업했고, 중앙미술대전에서 특선에 당선된 바 있다.

우아한 여인을 위한 진주 장신구전

크래프트하우스 9. 2~12



김효남 〈도시 이미지〉 1997

우아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보석 '진주'를 주제로 한 진주 장신구전. 진주를 이용하여 다양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특히 김효남의 작품은 세련되고 도시적이다. 바쁘고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막힘을 경계하고 트임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망을 작품에 담았다.

20·30대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신선한 감각과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백승철·한순인·김효남 등 총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앤드류 오웬

녹색갤러리 9. 22~10. 3

한국에서 거주하는 캐나다인 앤드류 오웬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익숙한 재료를 이용, 흔히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그의 손을 거치면 비 온 뒤 거리에 생긴 물 웅덩이 위에 비친 네온사인 모습도 매혹적일 수



〈백합들〉 1997

있고, 거리에 널려진 포르노 포스터들도 미술 재료가 된다. 그는 너무나도 익숙하여 매력을 상실한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방인이기에 편견없이 자유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듯하다.

온타리오 미술대를 졸업했고, 동양화와 서예를 배웠다.

이영미

단성갤러리 9. 9~15

이영미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으로 이해한다. 놀이 중에서도 공기놀이·실뜨기 놀이·가위바위보 등과 같은 손놀이를 도예작품으로 조형화한다. 손 자체의 형태적인 평면성과 입체성의 이중적 조형성을 보여주며, 놀이하는 손 동작의 실루엣을 간략하고 단순하게 하여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영미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요업디자인과를 졸업했고, 대한민국공예대전에 입선한 바 있다. 이번이 첫 번째 개인전이다.



〈가위바위보〉 1997